

자사고 · 일반고 동시지원 가능

내년 고교 입학전형 변경계획 발표... 도내 3개 자사고 · 전북외고 원서 접수일 조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6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경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지난 3월말 이미 공고되어 시행 중이었으나,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결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

라 이번 변경계획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수립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고·외고·자사고 등은 전형시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3월에 예고한 대로 후기에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국제고·외고·자사고 등은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시

정이 인용됨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 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 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자는 1지망에 국제고·외고·자사고를 지원하고 2지망부터 희망 순에 의해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원서접수 기간에 자

사고와 일반고 동시 지원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전북외고, 남성고, 군산중앙고의 원서접수 일자를 조정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 과장은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호원대 학생상담센터, 호원예방단과 군산경찰서 불법촬영 합동 점검

대학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성폭력 · 학교폭력 예방 위한 순찰 실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학생상담센터에서는 '호원예방단(Howon Keeper)'과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합동으로 26일에 강의동과 도서관 내 여성화장실 등 대학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및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였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카메라 이용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 군산경찰서 관계자 5명, 호원대학교 호원예방단 10명, 학생상담센터 상담원과 관계 시설팀 교직원들로 구성된 이번 합동 점검단은 전파·렌즈 탐지 전문장비 2대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불법촬영 및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경고문구 스티커도 부착하였다.

또한,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교직원대상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성문화상담실도 설치되어 있어 상담담 전문교수와 법학 전문교수에 의한 상담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상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미영 학생상담센터장(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교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정적인 대학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성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호원예방단(Howon Keeper)'과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합동으로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였다.

문화상담실)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교육, 피해 지원, 업무에 따른 심리적 지원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 및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 예방

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 드디어 통합운영

오늘 오후 6시~31일 오전 8시 모든 교육정보시스템 일시중단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 부지 내에 전산통합센터를 신축하여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전산시스템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의 노후화된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교육연구정보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산통합센터 건물을 신축했다. 이 건물은 스킴넷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KT에서 신축해 기부채납한 건물이다.

교육정보시스템은 27일 오후 6시부터

터 31일 오전 8시까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의 인터넷서비스를 비롯해 도교육청 및 모든 학교 홈페이지, NEIS, 에듀파인, 업무관리, 도서관 리통합시스템, e-스쿨 등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모든 정보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이전을 통해 분리·운영 중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절감, 인력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2학기 수강생 모집

6개 학부 191개 과정... 학위·국가자격 취득 과정 등 다채

지역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대진)이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교육복지학부와 생활교양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어문학부, 직업교육학부, 예술학부 등 6개 학부 191개 과정에 250개 반이다.

모집기간은 8월 1일부터 21일까지며, 방문과 전화(063-288-0022), 인터넷(<http://ec.jnu.ac.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대 평생교육원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대면교

과목, 대학 수업을 청강할 수 있는 명예학생 과정, 민간 자격증 취득과정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2학기 교육은 오는 9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주 동안 전주 경원동구 치과대학에 자리한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이뤄진다.

김대진 평생교육원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은 이 시대의 화두이자 세계적 흐름"이라며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열린 대학', '꿈이 있는 대학', '지역민의 대학'을 지향하며 한 차원 높은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세기 원불교학의 방향을 묻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월례연구발표회 열어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이 오늘 원불교학 신진학자를 초청, 제224차 월례연구발표회를 연다.

이번 월례연구발표회는 지난달에 이어 원불교학 신진학자들에게 2세기 원불교학의 방향을 묻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원진 박사는 '도상학(圖上學)으로 본 원불교의 교리도해'를 주제로 조선시대 도상학 전통의 연장선에서 원불교 교리도 및 교리실천도해와 천도교, 대종교의 교리도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원진 박사는 서울대에서 프랑수아와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성균관대에서 '퇴계 정학(情學)의 규방방원(規矩方圓) 구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두 번째 발표는 미국 필라델피아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원불교학을 공부하고, 영산선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정민주 교수가 나서며, '하늘의 소리를 받은 90년 : 전쟁고아의 어머니 황은순을 만든 사람들'을 통해 복지선구자 팔타원 황은순(1903~2004, 원불교명 황정신행) 종사의 삶을 그녀의 스승들에 초점을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원불교 장례문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마지막 발표에서는 원광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안훈(원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대표) 교수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원불교의 장례문화를 우리 조상들의 장례풍습과 비교하여 고찰한다. /익산=우병희기자



원광대학교가 제8대 익산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을 초청해 '산학협력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류회'를 개최했다.

원광대-익산시의회, 지역 활성화 위한 교류회

산학협력 중요성 · 지역균형발전 위한 사업추진 현황 소개

원광대학교가 제8대 익산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을 초청해 '산학협력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류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원광대 본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류회는 익산시의회와 원광대에서 주최하고, 원광대 LINC+사업단 지역선도센터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LINC+사업단 김기균 기획실장 사회로 배종환 기획처장의 원광대 현황 발표에 이어 송문규 산학협력단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직면한 산학협력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LINC+사업단 사업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김기수 학생복지처장은 원광대 시외버스 승하차장 신설에 대해 신속한

진행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조규대 의장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제8대 의회가 시작됐으니 의회 차원의 중재와 함께 집행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재규 인력개발처장은 졸업생들이 좋은 직장을 익산에서 찾아 익산에서 그 꿈을 펼쳐가도록 우수 기업 유치를 부탁했다.

특히 김도중 총장은 "원광대는 대학의 노력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오늘의 교류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계기가 되도록 대학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